

吐血에 관한 文獻的 考察

金鍾炯 · 卍 一

I. 緒 論

吐血은 胃食道出血로 胃腸管內의 病的인 變化가 있는 部位에서 出血되어 食道를 通하여 經口 出血하는 것으로 吐血色은 鮮紅色이고 消化中일 境遇는 暗褐色으로 比較的 大量 出血되고 食物의 殘渣가 섞여 나오는 것이며,¹⁾⁷⁾¹²⁾²³⁾²⁶⁾ 咳血은 呼吸器疾病, 循環器疾病等의 肺結核, 氣管支 擴張, 肺膿腫, 肺癌, 心臟病等에서와 같이 泡沫痰液을 含有하여 咽喉를 刺戟하여 咳嗽와 더불어 吐出血하는 것으로 吐血과는 区別된다.²⁶⁾

內經에서는 吐血을 嘔血이라고 名稱하였고, 吐血이라는 名稱은 <金匱要略>에 '悸吐堵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 中에서 '煩咳者 必吐血'이라고 하여 처음 記載되었고, 李²⁰⁾는 "成盆無聲者曰吐 成碗有聲者曰嘔" 이라 吐血과 嘔血을 区分하였으나 實際意義는 없다. 西醫學上 吐血의 原因은 食道疾患, 十二指腸疾患, 小腸疾患, 大腸疾患, 血管疾患, 全身疾患으로 나누며 主原因은 食道靜脈瘤破裂, 消化性潰瘍, 胃炎으로 全體原因의 90-95%로 胃腸管內의 病的變化로 出血되어 食道를 通하여 吐血한다고 하여 解剖學的位置에 따라 吐血의 原因을 理解하였고 韓醫學上에서는 李²⁰⁾는 大怒氣逆, 張²¹⁾, 李¹⁹⁾는 怒氣傷肝, 沈¹²⁾, 方等⁸⁾은 肝火犯胃, 張²²⁾, 李¹⁸⁾는 心氣不足, 嚴¹³⁾은 思慮傷心, 張²¹⁾은 脾胃氣虛, 胃火熱, 朱²⁵⁾는 陰虛火動, 痰盛積熱等이라 하여 吐血을 把握하려는 記述이 있으나, 比較的 重症이며 外見上으로도 重症인 吐血에 關한 全般的文獻考察이 없어 이에 本人은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는 文獻中에서 吐血로 表記된 것만을 모아 原因 症狀 및 治方에 對해 考察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內經時代의 古代文獻에서 부터 現代文獻에 이르기까지 總 27種의 文獻을 調査하여 그 文獻 中 吐血로 表記된 것에 限하여 그 原因, 症狀, 治方에 對하여 研究하였다.

III. 本 論

1. <黃帝內經>¹⁵⁾

舉痛論: 怒則氣逆 甚則嘔血及蓴泄 故氣上矣.

厥論: 太陽厥逆 孢嘔血 善堵 治主病者 陽明厥逆 喘 身熱 善 堵 嘔血

2. <金匱要略>²²⁾

* 大田大學 韓醫科大學 内科學教室

吐血篇曰：病人面無血色，無寒熱，脈沈弦者堵；浮弱手按之絕者下血；煩咳者必吐血。夫吐血咳逆上氣，其脈數而有熱，不得臥者，死。夫酒客咳者，必致吐血，此因極飲過度所致也……吐血不止者，柏葉湯主之。心氣不足，吐血，堵血，瀉心湯主之。

3. <諸病原候論>¹⁰⁾；吐血候

內堵者，出血如鼻堵，但不從鼻孔出，是近心肺

間津出還流入胃內，或如豆汁，或如堵血，凝停胃裏，因即滿悶便吐，或去數升乃至一斛是也。……肺疽者，言飲酒之後，毒滿便吐，吐已後有一合二合或半升一升是也。……傷胃者，是飲食大飽之後，胃內冷不能消化，則便煩悶，強嘔吐之，所食之物與氣共上衝，因傷損胃口，便吐血色鮮正赤是也。

4. <千金方>¹¹⁾

凡吐血後，體中但自倦倦然，心中不悶者，輒自愈，假令煩躁，心中悶亂，紛紛嘔吐，顛倒不安，醫工又與黃土湯，阿膠散，益加悶亂，卒至不濟，如此悶者，當急吐之。

5. <活人書>²⁴⁾

傷寒吐血，由諸陽受邪熱，初在表，應發汗而不發汗，熱毒入深，結于五臟，內有瘀積，故吐血也。瘀血甚者，抵當丸，輕者，桃仁承氣湯，兼服犀角地黃湯，三黃丸。

6. <濟生方>¹³⁾

夫血之妄行也，未有不因熱之所發，蓋血得熱則溢，血氣俱熱血隨氣上，乃吐堵也。大抵脈珪爲失血，沈細者易治，浮大者難治。又有感冒汗後不解，鬱于經絡，隨氣湧泄，而成堵血，思慮傷心，心傷則吐堵，肺傷亦令人吐血，又有折傷吐血，治療之法，當以證別之，乃可施治。

7. <河間六書>¹⁷⁾；上溢

血溢者，上出也。心養于血，故熱甚則血有餘而妄行，或謂嘔吐紫瘀血胃寒者，誤也。此非冷凝，由熱甚銷，以爲稠濁，而熱甚則水化制之，故赤兼黑而爲紫也。

8. <東垣十書>¹⁸⁾；吐堵

如兩寸脈珪，血在上焦，或堵血，或嘔血，與犀角地黃湯則愈。脈沈爲在裏，營衛內結，胸滿，必吐血。……心氣不足，則吐堵血，用瀉心湯何也？曰：心氣獨不足，則不當吐堵也，此乃邪熱因不足而客之，故爲吐堵，以寒泄其熱，以苦補其心，蓋兩全之義也。……

9. <丹溪心法>²⁵⁾；吐血

吐血陽盛陰虛，故血不得下行，因火炎上之勢而上出，脈必大而珪，大者發熱，珪者，血滯與失血也。大法補陰益火，使復其位，用交趾桂五錢爲末，冷水調服，山梔子最清胃脘之血。……吐血覺胸中氣塞，上吐紫血者，桃仁承氣湯下之。……先吐紅後見痰嗽，多是陰虛火動，痰不下降，四物湯爲主，加瘀藥火藥，先痰嗽後見紅，多是痰盛積熱，清痰降火爲急，痰嗽涎帶血出，此是胃口清血熱蒸而出，重者梔子，輕者實，或暴吐紫血一碗者，無事，吐出爲好，此熱傷血死于中，四物湯解毒湯之類。……吐血出于胃也，實者犀角地黃湯主之，虛者小健中湯加黃蓮主之。

10. <證治要結>⁵⁾

吐血者，血溢入濁道，留聚膈間，滿則吐血，名曰內堵，宜蘇子降氣湯加人蔴，阿膠各半錢，下養正丹，濕溢血傷，能令吐血，腎著湯加川芎，名除濕湯，此乃濕毒鬱于經絡，血溢妄行，從鼻則堵，堵行清道，流入胃脘，令入吐血，妄行于上，或吐，或咯，或嗽，用琥珀散者固多有之，宜擇末藥中入此一味，或煎藥去滓可調服。……上膈壅熱吐血，四物湯加荊芥，阿膠各半錢，更不止，于本方中加大黃，滑石各半錢，或降氣湯吞木香散丸，從大便導之，然此實熱則可，虛勞則不可。……吐甚頭暉，

發爲寒熱者，降氣湯加四物湯各半貼，加阿膠一錢，若單單發熱者，茯苓補心湯……胃傷吐血，宜理中湯加川芎，乾葛各半錢，或只宜理中本方，加川芎，扁豆尤好，不必乾葛，渴則用葛。……打損惡血，滲入胃中，以致吐血，宜先進蘇合香丸，仍以黑神散和小烏沈湯，童便調治。夏月伏暑吐血，茅花湯調五苓散。有因勞力太過，吐血不止，蘇子降氣湯加人蔘半錢煎。……有時或吐血兩口，隨卽無事，數日又發，經年累月不愈者，宜黑神散和小烏沈湯常服，吐血人多發渴，名爲血渴，四物湯，十全大補湯，量胃氣虛實用之，吐血後血止而變生諸證者，見堵血證。

11. <醫學綱目⁶⁾

經云：怒則氣逆，甚則嘔血，故氣上矣。又云：陽氣者，大怒則形氣絕，而血逆于上，使人薄厥，此皆怒則傷肝氣而嘔血，以黃連，香附，青黛，柴胡，甘草，平其肝自愈矣，宜服赤茯苓瀉心湯。

12. <醫學入門²⁰⁾

成盆無聲者，曰吐。成碗有聲者，曰嘔。怒氣逆甚，血溢口鼻，當抑怒全陰，熱者解鬱湯，虛者保命散。氣虛發熱，咽喉痛，甘桔湯加蔴，者，歸，地，荊芥，黃水煎，入童便，汁，薑汁，鬱金小許。或單黃蜜灸爲末，麥門冬煎湯下。血虛熱熾，當滋陰降火，加減四物湯主之。

13. <醫宗必讀¹⁹⁾

上盛下虛，血隨氣上，法當順氣，氣降則血歸經矣。蘇子降氣湯，脈來微軟，精神困倦，是氣虛不能攝血，人蔘飲子，或獨蔴湯，吐血色暗，脈遲而寒者，理中湯，勞力者，蘇子降氣湯加阿膠，或以猪肺煮熟，白芨末食之。

14. <景岳全書²¹⁾

吐血咯血，因勞損而氣虛脈靜，或微弦無力，既非火證，又非氣逆而血妄行，此真陰內損，絡脈受傷也。惟用甘醇補陰培養脈絡，使營氣漸固，而血自安。宜一陰煎，左歸飲，六味地黃湯，小營煎之類，酌宜用之，若虛在氣分者，宜五福飲，或大補元煎，爲最佳。此等症候，最忌寒涼，亦忌行散，以其非虛損所宜也。吐血咯血，凡兼口渴咽痛，煩躁喜冷，脈滑便實，小水赤熱等證，此水不制火，陰虛陽盛而然，治當滋陰壯水，微佐清涼，宜二陰煎，四陰煎，或加減一陰煎，生地黃飲子，天門冬丸之類，察其臟氣，隨宜用之，若熱不甚者，惟一陰煎，左歸飲，或六味地黃湯之類，爲宜。此證大忌辛溫，如芎，歸，耆，朮，杜沖，破古脂，香附，砂仁，薑，桂之屬，皆所當避。吐血全由火盛而逼血上行者，宜察火之微甚，火微者，宜局方犀角地黃湯，或清化飲主之，火暴甚而根本無傷者，宜抽薪飲，徙薪飲，或黃蓮解毒湯，三黃丸之類主之，若胃火熱甚，而煩熱作渴，頭痛脈滑，氣壅而吐血不止者，宜白虎湯，或抽薪飲。若胃火熾盛而兼陰虛水虧者，宜玉女煎，若陽明實熱，甚而兼便結腹脹氣壅不降者，宜拔萃犀角地黃湯，或涼膈散，或桃仁承氣湯之類主之。然此證不多見，必審的確乃可用之，勿孟浪也！飲酒過多而吐血者，宜徙薪飲，清化飲，或葛花解醒湯，加黃蓮，丹皮主之。怒氣傷肝，動肝火則火載血，上動肝氣，則氣逆血分，所以皆能嘔血。凡肝火盛者，必有煩熱脈症，有芍藥，生地黃，丹皮，梔子，澤瀉，芩，蓮之屬，降其火而血自清。若肝氣逆者，必有胸脇痛滿等證，宜芍藥，生地黃，青皮，陳皮，枳角，貝母，澤瀉之屬，行其氣而血自清。若火因氣逆者，惟化肝煎爲宜。其有病雖因怒而或逆氣已散者，不得再加行散以傷真氣，或肝火已平，勿得過用苦寒，再損元陽。此凡肝氣爲邪，每多侮土，故當治脾胃受傷及營血失守等證。若察其無脈無火，脈虛神困而有妄行者，此其病傷在脾，治當專理中氣，宜五陰煎，五福飲之類主之。或兼火不生土，則理中湯，二陰煎之屬皆不可

少，勿謂始因怒氣而專意伐肝也。憂思過度，損傷心脾，以致吐血咯血者，其病多非火症，或常見氣短氣怯，形色憔悴，或胸懷鬱結，飲食無味，或腹雖覺飢而不欲食，或神魂因而臥不安，是皆中氣虧損，不能收攝所致，速宜救本，不得治標，惟五福飲，五陰煎之類爲宜。其或氣陷而稍滯者，宜歸脾湯，若陽分不足者，宜理中湯，或二陰煎之類主之。若素多勞倦，思慮，或善嘔吐，或善瀉泄而忽致吐血下血者，此脾虛不能攝血，非火症也，宜六味回陽飲大加白朮主之，切不可用清寒等藥。暑毒傷人，多令人吐衄失血，皆暑氣通心，火毒刑肺也。然暑氣傷心，熱又傷氣，其人必脈虛氣怯，體倦息微。若但知爲熱而過用寒涼，則氣必愈傷，害斯甚矣。此惟生脈散，人蔘湯之屬爲宜。若氣虛之甚者，當以人蔘，黃耆并可用之。若火甚而熱渴煩悶者，宜人蔘白虎湯，或竹葉石膏湯。若氣不甚虛者，宜局方犀角地黃湯，或枇杷葉散。格陽失血之症，多因色慾勞傷過度，以致真陽失守于陰分，則無根虛火浮泛于上，多見上熱下寒，或頭紅面赤，或喘促躁煩，而大吐大衄，失血不止。但其六脈細微，四肢厥逆，或小便清利，大便不實者，此格陽虛火症也。速宜引火歸原，用鎮陰煎或八味地黃湯之類，則火自降而血自安矣。若用寒涼，陽絕則死。所吐之血色黑而暗，必停積失位之血，非由火逼而動也。或面白息微，脈弦緩弱，身體清涼，此必脾胃氣虛，不能攝血而然，皆非火症，若用涼血之劑，必致殆矣。三因方云，理中湯能止傷胃吐血，以其溫中大能分理陰陽，安和胃氣，故當用也。若察其虛在陰分，則又惟二陰煎爲最宜。凡血逆上焦，紫黑成塊，或痛或悶，結聚不散者，惟宜行散，或吐出方好。大都治血之法，多忌辛散，恐其能動血也。惟此留滯之血，則不妨用之。如四物湯加香附，肉桂，蘇木，紅花之屬，無不可也。或服汁，亦善行瘀血。

15. <血證論⁴⁾

凡人吐痰吐食皆胃之咎，血雖非胃所主，然同是吐證，安得不責之於胃，況血之歸宿，在於血海，衝爲血海，其脈麗於陽明，未有衝氣不逆上而血逆上者也。仲景治血以治衝爲要，衝脈麗於陽明，治陽明則治衝也。陽明之氣，下行爲順，今乃逆吐，失其下行之令，急調其胃，使氣順吐止則血不致奔脫矣。此時血之原委，不暇究治，惟以止血爲第一要法，血止之後，其離經而未吐出者，是爲瘀血，既與好血不相合，反與好血不能，或壅而成熱，或變而爲勞，或結珂，或刺痛，日久變證，未可預料，必極爲消除，以免後來諸患，故以消瘀爲第二法，止吐消瘀之後，又恐血再潮動，則須用藥安之，故以寧血爲第三法，邪之所賴其正必虛，去血既多，陰無有不虛者矣。陰者陽之守，陰虛則陽無所附，久且陽隨而亡故又以補虛爲收功之法，四者乃通治血證之大綱……吐血之症，屬實證者十居六七以上二方，投之立效，然亦有屬虛屬寒者，在吐血家，十中一二爲之醫者不可不知也。虛症去血太多，其證喘促昏潰，神氣不續，六脈細微虛浮散數，此如刀傷出血，血盡而氣亦盡，危脫之症也。獨蔘湯救護其氣使氣不脫則血不奔矣。寒證者，陽不攝陰，陰血因而走溢，其證必見手足清冷，便溺遺尿，脈細微遲澁面色慘白，脣口淡和，或內寒外熱，必實見有虛寒假熱之真精，甘草乾薑湯主之，以陽和運陰血，虛熱退以陰血自守矣。

16. <東醫寶鑑²⁷⁾

傷胃吐血宜理中湯加川芎乾葛肺疽吐血宜葛黃丸內堉吐血實者三黃瀉心湯加生地黃虛者茯苓補心湯人蔘救肺散……汗乃心液熱則變紅而逆出上竅 傷寒失汗則熱毒入藏化爲瘀血從口吐出多屬陽明。凡見目紅骨熱神昏狂躁胸腹急滿皆血症也。輕者犀角地黃湯黃芩梔子茅根藕節，重者桃仁承氣湯抵當湯丸。

17. <實用中醫內科學⁸⁾

熱傷營血:發熱煩躁,吐血色紅,面赤目赤,口乾脣紅,夜不得臥,大便秘結,小便赤熱,
舌質紅絳,脈洪大.

治法:清熱解毒,涼血止血.

方藥:犀角地黃湯

胃中積熱:脘腹脹滿,甚則作痛,吐血色紅或紫暗,或挾食物殘渣,口臭便祕,舌紅,苔黃,脈滑數.

治法:清胃瀉火,化瘀止血.

方藥:瀉心湯合十灰散加減.

濕熱傷胃:脘腹煩悶,脹痛不舒,惡心嘔逆,吐血色紅,量多,或紫暗成塊,不思飲食,口苦,小便色赤,便祕或便黑,舌紅,苔黃,脈濡數.

治法:清熱化濕,涼血止血.

方藥:枳實導滯丸合四生丸

肝火犯胃:吐血色紅或帶紫,口苦脹痛,寐少夢多,煩躁易怒,舌質紅絳,脈象弦數.

治法:瀉肝清胃,涼血止血.

方藥:龍膽瀉肝湯加減.

積滯傷胃:胃脘脹滿,甚則疼痛,腐吞酸,吐血色紅,夾有不消化食物,大便不爽,苔厚,脈滑.

治法:消積導滯,和胃止血.

方藥:保和丸加味.

瘀阻胃絡:胃脘疼痛,痛有定處而拒按,痛如針刺或刀割,吐血紫暗,舌質紫,脈澁.

治法:活血化瘀,理氣止痛.

方藥:血府逐瘀湯加減.

寒鬱中宮:胃痛隱隱,泛吐清水,喜熱飲,納食減少,吐血淡紫,便色黑,形寒畏冷,甚者手足不溫,舌質淡,脈軟弱.

治法:溫陽健脾,養血止血.

方藥:黃土湯加減.

陰虛火旺:胃痛隱隱,吐血量多,色紅,面色紅潮,盜汗,口渴引飲,煩躁不安,頭暈心悸,耳鳴,少寐,大便黑或乾黑,舌紅少苔,脈細數.

治法:滋陰清熱,涼血止血.

方藥:玉女煎加味.

中氣虛弱:胃痛綿綿,時作時止,痛時喜按,遇勞後更甚,吐血色紅,大便色黑,兼有神疲,氣短,怯寒,面色白,頭昏等證,舌淡,苔薄,脈虛弱.

治法:調補脾胃,升陽益氣.

方藥:補中益氣湯加味.

氣虛血虧:吐血,便血,或鼻齒堵血,皮膚紫斑,面 ,頭暈,心悸,夜寐不寧,神疲乏力,舌質淡,脈細無力.

治法:健脾益氣,補氣攝血.

方藥:歸脾湯加味.

18. <血證證治¹²⁾

分型	主 症	兼 症	舌 脉	治 法	治 方
胃中	脘腹脹滿疼	大便色黑,夾	舌紅苔黃,脈	清胃瀉火,化	瀉心湯合

積熱	痛, 吐血色紅 或紫暗或口 臭便祕	有食物殘渣	滑數	瘀止血	十灰散
肝火犯胃	吐血色紅或 帶紫, 口苦脇 痛	寐少夢多, 煩 躁易怒	舌質紅絳, 脈象 弦數	清肝瀉胃, 凉 血止血	龍膽瀉肝湯
積滯 傷胃	胃脘脹滿疼痛, 腐吞酸 , 吐血色紅	夾有不消化 食物, 大便不 爽	苔厚 , 脈滑	消積導滯, 和胃止血	保和丸
瘀阻 胃絡	吐血紫暗, 胃 痛有定處拒 按	痛如針刺或 刀割	舌質紫, 脈澀	理氣活血, 化 瘀止血	化血丹
氣虛 血溢	吐血暗淡, 胃 痛隱隱, 時作 時止, 痛時喜 按	勞則更甚, 大 便色黑, 氣短 神疲	舌淡苔薄, 脈 虛弱	健脾補氣, 益氣攝血	歸脾湯

19. <中醫歷代醫論選>¹⁴⁾

吐血治療三要法

宜行血, 不宜止血, 血不行經絡者, 氣逆上壅也. 行血則血循經絡, 不止自止, 之則血凝, 血凝則發熱, 惡食, 痘日痼矣. 宜補肝, 不宜伐肝, 經曰, 五臟者, 藏精氣而不瀉者也, 肝為將軍之官, 主藏血, 血者, 肝失其職也. 養肝則肝氣平而血有所歸. 伐之則肝虛不能藏血, 血愈自止矣. 宜降氣, 不宜降火, 氣有餘即是火, 氣降即火降, 火降則氣不上升, 血隨氣行, 溢出上竅之患矣. 降火必用寒涼劑, 反傷胃氣, 胃氣傷則脾不統血, 血愈不能歸矣.

20. <中醫臨床手冊>¹⁵⁾

胃有 積熱	以血從嘔吐 而出為主症 血色紫暗或 成塊如豬肝	胸悶或痛, 脣紅 口臭, 雜便結 舌苔黃, 脈滑數.	清胃泄火	瀉心湯 合 十灰散
肝火 乘胃		心煩善怒, 口苦 脇痛, 少寐多夢 舌質紅, 脈弦數.	平肝清胃	瀉心湯 加 龍膽草, 丹皮, 山梔 合十灰散

21. 診療要鑑²⁾

嘔血症, 吐血症

嘔血과 吐血은 양자 共히 口腔으로 出血하는 病인데, 嘔血症은 嘔逆聲을 發하면서 出血하는 것이고, 吐血症은 嘔逆聲이 없이 大量 出血하는 것이다. 吐血은, 內堵 肺疽 傷胃 等 三症으로 區別한다.

原因 및 症狀

1. 內堵吐堵이란, 勞役過度 또는 飲食過傷에 起因하므로 心肺間에서 出血되어 胃 中으로 流入하여 癥血이 胃中에 停留하므로, 胃中이 滞滿 不安하다가 豆羹汁 (팥죽즙)같은 瘀血을 數斗씩 大量으로 吐血하는 것이다.

2. 肺疽吐血은 飲酒過度한 後에 热毒이 滿悶하여 嘔吐한 後에, 吐血을 一合 或은 半升 或은 一升씩 吐血하는 것이다.

3. 傷胃吐血은 飲食大飽한 後에 胃가 冷하여 消化시키지 못하며, 腹痛 煩悶하여 強制로 嘔吐하면 飲食中毒物이 氣를 따라 上衝 할 때에 胃口가 破裂되어 鮮赤色의 血을 吐하며, 腹痛이 紛甚하여 自汗이 流出된다. 其脈이 繫數하면 難治症에 屬한다.

治法: 内堵吐血에는 實者는 三黃瀉心湯에 生地黃을 加해 쓰고, 虛弱者에게는 茯苓補心湯 人蔴救肺散을 쓴다. 肺疽吐血에는 葛黃丸 側柏散을 쓴다. 傷胃吐血에는 腹痛이 있으면 理中湯(方在寒門)에 川芎 葛根을 加해 쓰고, 腹痛이 없으면 是齊白朮散을 쓴다.

갑자기 紫黑色의 血塊를 吐出하는 것은 热甚 傷血로 因한 癥血이니, 清熱解毒湯을 쓴다.

傷寒病에 失汗되면, 热毒이 内部로 侵入하여 癥血이 되어, 口 或은 鼻로 出血하게 된다. 陽明經에 屬하므로 眼目이 變赤하며, 神昏 陳狂 胸腹急滿 症을 發하는데. 輕하면 犀角地黃湯에 黃芩 桔子 生薑節 茅根을 加해 쓰고, 便閉되면 桃仁承氣湯을 쓴다.

堵. 吐血의 通用藥은 犀角地黃湯 清血地黃湯 大개飲子 清熱解毒湯을 쓴다.

IV. 考 察

吐血은 胃와 食道出血로 經口 出血하는 것으로서 比較的 大量 出血하여 食物의 殘渣가 섞여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또 吐血은 食道靜脈瘤破裂 消化性潰瘍 胃炎 및 胃腸病等과 같이 消化器疾患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⁷⁾⁽²³⁾⁽²⁶⁾

咯血은 呼吸器疾病, 循環器系疾病과 같이 肺結核, 氣管支 擴張, 肺膿腫, 肺癌, 心臟病等에 多見하는 것으로 泡沫痰液의 症狀을 보이는 것으로 吐血과는 區別된다.¹⁶⁾

吐血에 對하여 <內經·舉痛論>에서는 大怒氣逆 <內經·厥論>에 陽氣厥逆하여 血液妄行所致라 하여 嘔血로 言及하였고 張²²⁾은 '警悸吐堵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 中에서 吐血의 原因을 極飲過度, 心氣不足이라 하고 治方으로는 栢葉湯, 瀉心湯等의 具體的 方劑를 提示했다. 巢¹⁰⁾는 吐血이 勞倦飲食過傷, 飲酒, 飲食大飽之後, 胃中冷等으로 胃口損傷으로 出한다하여 吐血病이 胃에 在함을 말했으며, 朱²⁴⁾는 吐血의 原因을 傷寒 表症에 汗法을 誤用해 热毒入深하여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治方으로는 抵當丸, 桃仁承氣湯等 化瘀止血의 具體的 方劑를 提示하였다. 嚴¹³⁾은 吐血을 血이 熱을 得하여 血과 氣가 熱하여 血이 氣上을 따라 溢吐堵한다 하였고, 劉¹⁷⁾는 血이 熱氣의 上升을 따라 妄動하여 吐出한다 하였으며, 李¹⁸⁾는 心氣不足하여 邪熱이 侵襲하는 故로 吐堵血을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治方으로는 犀角地黃湯을 提示하였다. 朱²⁵⁾는 吐血을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理論에 의해 陽盛陰虛, 陰虛火動, 痰盛積熱로 因해 血이 上出하는 故로 補陰抑火, 清痰降火하는 治法을 提示했고 治方으로는 桃仁承氣湯, 四物湯, 解毒湯, 犀角地黃湯, 小健中湯을 提示했다. 戴⁵⁾는 吐血의 外因을 夏月伏暑라 하여 治方으로는 茅花湯에 五苓散을 調服시켜 主治하였고 吐血의 內因으로는 濕溢血傷, 上膈壅熱, 胃傷, 勞力太過라 하였고 症狀

으로는 鼻堵吐血, 或咯或嗽 吐甚頭運, 發爲寒熱, 有時或吐血 數日又發 經年累月不愈等이
出한다 하였고 治方으로는 蘇子降氣湯, 除濕湯, 四物湯, 理中湯, 黑神散, 小烏沈湯을 提示
하였다. 樓⁶⁾는 吐血의 原因을 大怒氣逆이라 하여 形氣絕, 薄厥等의 症狀이 出하고 治法
으로는 平肝氣, 治方으로는 赤茯苓瀉心湯을 提示하였다. 李²⁰⁾는 脾胃와 氣血의 關係를
重要하게 認識하여 脾胃는 能히 氣血을 統攝하는 故로 血病을 胃藥으로 治療하며 胃氣
一復하면 血自止한다고 하였고, 大怒氣逆하면 血溢口鼻하므로 抑怒全陰의 治法을 使用
하였으며 治方으로는 解鬱湯, 保命散을 提示하였다. 血虛熾盛으로 因한 吐血에는 滋陰降
火하는 加減四物湯을 使用하였다. 李¹⁹⁾는 吐血의 原因을 上盛下虛, 氣虛, 怒氣傷肝, 勞
心, 酒傷, 飲食傷胃, 寒, 勞力으로 分類했으며 治方으로는 蘇子降氣湯, 人蔘飲子, 獨蔘湯, 理
中湯等을 提示하였다. 張²¹⁾은 血의 根本은 陰精으로 不動하는 것인데 動한 則 病이 되
며 血을 動하게 하는 것은 오직 火와 氣라 했다. 火盛則 逼血妄行하는 故로 氣가 損傷
을 받아 血에 存在할 수 없게 되고 陽盛陰虛하면 血隨氣上하게 되므로 治法으로는 補
陰抑揚, 清火降氣等을 提示했고 火에도 虛實이 있으니 補法과 清法을 兼해야 한다고 했
다. 許²⁷⁾는 吐血의 原因에 傷寒失汗하여 熱毒入藏하여 目紅, 骨熱, 神昏, 狂陳, 胸腹急滿
한다하여 朱²⁴⁾와 같은 主張을 하였다. 方等⁸⁾은 吐血의 外因을 熱傷營血이라 하여 清熱
解毒, 凉血止血하는 犀角地黃湯을 提示했고 内因은 크게 虛와 實로 나누어 辨證施治하
였는데 實證은 火, 熱, 痰血, 寒으로 分類하여 清熱瀉火, 凉血化痰, 溫陽止血의 治法을 提
示했고 虛症으로는 陰虛, 中氣虛弱, 氣虛血虧로 分類하여 滋陰止血, 調補脾胃, 補氣攝血의
治法을 提示하였다. 以上에 文獻을 考察해 볼 때 吐血에 對한 韓醫學의 原因 症狀 治方
을 外因, 内因으로 나누어 總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外因性 吐血

外因性 吐血의 原因에는 朱²⁴⁾, 嚴¹³⁾, 張²¹⁾, 許²⁷⁾는 傷寒의 汗法을 誤用하여 熱毒이 入藏
하여 되는 陽明實熱, 戴⁵⁾, 張²¹⁾은 暑毒傷心을 말하였는데, 陽明實熱의 症狀으로는 目紅,
骨熱, 神昏, 狂陳, 胸腹急滿, 便結, 腹脹이 온다고 하였고 暑毒傷心의 症狀으로는 脈虛
氣怯, 體倦息微, 熱渴煩悶 있다고 하였다. 治方에 있어서는 陽明實熱은 輕症에 犀角地黃
湯으로 重症에 桃仁承氣湯 抵當湯丸으로 主治하였으며 暑毒傷心에는 生脈散, 人蔘湯, 人
蔘白虎湯, 竹葉石膏湯으로 主治한다고 하였다.

2. 内因性 吐血

內因性 吐血의 原因에는 王¹⁵⁾, 樓⁶⁾, 李²⁰⁾, 李¹⁹⁾, 張²¹⁾은 大怒氣逆이라 했으며, 張²²⁾, 嚴¹³⁾,
李¹⁸⁾, 李¹⁹⁾는 思慮傷心, 戴⁵⁾, 張²¹⁾, 李²⁰⁾, 李¹⁹⁾는 脾胃氣虛, 張²¹⁾, 方等⁸⁾은 胃火熱, 朱²⁵⁾,
張²¹⁾, 方等⁸⁾은 陰虛火動, 張²¹⁾은 真陰內損, 朱²⁵⁾는 痰火積熱, 李¹⁸⁾, 戴⁵⁾, 張²¹⁾, 方⁸⁾등은 痰
阻胃絡等을 말하였다.

症狀으로는 大怒氣逆은 形氣絕, 薄厥, 嘔血, 血溢口鼻한다고 하였고, 思慮傷心은 吐血
堵血이라고 하였고, 脾胃氣虛는 吐血色 黑而暗 面白息微 脈弦緩弱 身體清涼이라 했으
며, 胃火熱은 煩熱作渴 頭痛脈滑 吐血不止라 하였고, 陰虛火動은 먼저 血이 나오고 後에
痰嗽가 나오는 것이 많다고 하였고, 真陰內損은 脈靜 或 微弦無力 口渴咽痛 煩躁喜
冷이라 하였으며, 痰火積熱은 先痰嗽後見紅 痰嗽涎帶血出이라 하였으며, 痰阻胃絡의
症狀으로는 紫黑成塊 或痛或悶 이라고 하였다. 治方으로는 大怒氣逆은 赤茯苓瀉心湯,
熱者는 解鬱湯, 虛者는 保命散等으로 主治한다고 하였고, 思慮傷心은 瀉心湯, 脾胃氣虛
는 理中湯 二陰煎, 胃火熱에는 白虎湯 抽薪飲 犀角地黃湯, 陰虛火動은 四物湯, 真陰內
損에는 一陰煎 左歸飲 六味地黃湯 二陰煎 生地黃飲子 天門冬丸, 痰火積熱에는 四物湯
解毒湯, 痰阻胃絡에는 犀角地黃湯 四物湯等으로 主治한다고 하였다.

以上으로 볼 때 吐血을 外因과 内因으로 나누어 圖表로 나타내면 Table 1.2와 같다.

〈Table1〉. 外因性 吐血

原 因	症 狀	治 方
陽明實熱	目紅, 骨熱, 神昏, 狂陳, 胸腹急滿, 便結 腹脹	犀角地黃湯, 桃仁承 氣湯, 抵當湯丸
暑毒傷心	脈虛氣怯, 體倦息微, 熱渴, 煩悶	生脈散, 人蔘湯, 人 蔘白虎湯, 竹葉石膏 湯

〈Table2〉. 内因性 吐血

原 因	症 狀	治 方
大怒氣逆	形氣絕, 薄厥, 嘔血, 血溢口鼻	赤茯苓瀉心湯 解鬱湯, 保命散
思慮傷心	吐血, 埋血	瀉心湯
脾胃氣虛	吐血色黑而暗, 面白息微, 脈弦緩弱 身體清涼	理中湯 二陰煎
胃火熱	煩熱作渴, 頭痛脈滑, 吐血不止	白虎湯, 抽薪飲, 犀角地黃湯
陰虛火動	先吐紅後見痰嗽	四物湯
真陰內損	脈靜 或微弦無力 口渴咽痛, 煩躁喜冷	一陰煎, 左歸飲, 六味地黃湯, 二陰煎 生地黃飲子, 天門冬 丸
痰火積熱	先痰嗽後見紅, 痰嗽涎帶血出	四物湯, 解毒湯
瘀阻胃絡	紫黑或塊, 或痛, 或悶	犀角地黃湯 四物湯

V. 結 論

以上 <內經>으로부터 現代 文獻에 이르기까지 總 27種의 文獻을 통하여 吐血의 原因 症狀 治法을 考察하여 본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吐血의 原因 中 外因으로는 陽明實熱, 暑毒傷心等이 있었고, 內因으로는 大怒 氣逆, 思慮傷心, 脾胃氣虛, 胃火熱, 陰虛火動, 真陰內損, 痰火積熱, 淤阻胃絡等이 있다.
2. 吐血의 外因으로 因한 主 症狀에 陽明實熱은 目紅 神昏 狂陳 便結 등이 있고, 暑毒傷心은 脈虛氣怯 體倦息微等이 있다. 內因으로 因한 主 症狀에 大怒氣逆은 形氣絕, 薄厥, 嘔血등이 있고, 思慮傷心은 吐血 堕血등이 있고, 脾胃氣虛은 吐血色 黑而暗 面白息微등이 있고, 胃火熱은 煩熱作渴 頭痛脈滑등이 있고, 陰虛火動은 先吐紅而後見瘀厥등이 있고, 真陰內損은 脈靜 或 微弦無力등이 있고, 痰火積熱은 先瘀厥後見紅등이 있고, 淤阻胃絡은 紫黑成塊 或痛 或悶等이 있다.
3. 吐血의 治方으로 外因에는 犀角地黃湯, 桃仁承氣湯, 生脈散, 人蔘白虎湯等을 使用했고 內因에는 赤茯苓瀉心湯, 瀉心湯, 理中湯, 白虎湯, 四物湯, 一陰煎, 解毒湯, 犀角地黃湯等을 사용했다.

參 考 文 獻

1. 김동일 외: 東醫學辭典 麓江出版社 1988 PP. 880-881
2. 金定濟 : 診療要鑑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P. 238-239
3. 金定濟 외 : 東醫肝系內科學 서울 集文堂 1983 PP. 172-175
4. 唐容川 : 血證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7 PP. 17-19
5. 戴思恭 : 證治要結(醫部全錄 卷271) PP1124-1125
6. 樓全著 : 醫學綱目 臺北 北一出版社 中華民國 62 PP. 55-56
7. 文錫哉 외 : 東醫脾系內科學 一中社 1988 PP. 218-220
8. 方薦中 외 : 實用中醫內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 526-532
9. 葉天士 : 臨床指南醫案 翰成社 PP. 95-101
10. 巢元方 : 諸病原候論 大成出版社 P. 816
11.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21-223
12. 沈全魚 외 : 血證證治 中醫古籍出版社 PP. 25-34
13. 嚴用和 : 濟生方(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17
14. 王新華 : 中醫歷代醫論選 一中社 1983 PP. 274-375

15. 王玉文 編: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188, 215
16. 原安徽中醫學院 : 中醫臨床手冊 P. 74
17. 劉完素 : 河間六書(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1117
18. 李東垣 : 東垣十種醫書 上海鴻文書局 1980 P. 347
19. 李中宰 : 醫宗必讀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7 P. 120
20. 李梃 : 醫學入門 輸成社 1984 P. 392
21. 張介賓 : 張氏景岳全書 輸成社 1983 P. 549-551
22. 張機 : 金匱要略重編 世一書局印行 中華民國 七十二年 PP. 137-140
23. 張仁圭編著 : 東醫消化器內科學 科學教育社 1985 PP. 121-125
24. 朱肱 : 活人書(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1116
25. 朱震亨 : 丹溪心法附餘 臺北 大成出版社 1982 PP. 394-404
26. 中醫研究院 : 中醫症狀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 251-253
27. 許浚 : 東醫寶鑑 南山堂 1989 PP. 108-109